○ 孟子見齊宣王, 曰: 「所謂故國者, 非謂有喬木之謂也, 有世臣之謂也. 王無親臣矣.」 (≪孟子.梁惠王下≫)

【해석】

맹자(孟子)가 제선왕(齊宣王)을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른 바 '오래된 나라'(故國)란 교목(喬木)이 있는 나라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세신(世臣)이 있는 나라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친신(親臣)도 없으십니다."

(≪맹자·양혜왕하≫ 중에서)

○ 齊宣王問卿. 孟子曰: 「王何卿之問也?」 王曰: 「卿不同乎?」 曰: 「不同, 有貴戚之卿, 有異姓之卿.」 王曰: 「請問貴戚之卿.」 曰: 「君有大過則諫, 反覆之而不聽, 則易位.」 王勃然變乎色. 曰: 「王勿異也. 王問臣, 臣不敢不以正對.」 王色定, 然後請問異姓之卿. 曰: 「君有過則諫, 反覆之而不聽, 則去.」 (≪孟子.萬章下≫)

【해석】

제선왕(齊宣王)이 경(卿)에 대해 묻자, 맹자(孟子)가 말했다. "왕께서는 어떤 경을 물으십니까?"

왕이 말했다. "경이면 같은 경이 아닙니까?"

(맹자) "같지 않습니다. 귀척(貴戚)의 경이 있고, 이성(異姓)의 경이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귀척의 경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맹자) 말했다. "군주에게 큰 허물이 있으면 간(諫)하고, 반복해서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왕위를 바꿉니다."

왕이 울그락불그락하며 안색이 변하자,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는 괴이타 마십시오. 왕께서 신에게 물으시니, 신이 감히 바르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이 안색을 가다듬은 뒤에 이성의 경에 대해 묻자, (맹자가) 말했다. "군주에게 허물이 있으면 간하고, 반복해석 간하여도 듣지 않으면 떠나버립니다."

(≪맹자·만장하≫ 중에서)

○ 「今有璞玉於此, 雖萬鎰, 必使玉人彫琢之. 至於治國家, 則曰: □姑舍女所學而從我□ , 則何以異於敎玉人彫琢玉哉?」(≪孟子.梁惠王下≫)

【해석】

"여기에 옥이 덩어리 채로 있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제아무리 수십만 냥이나 되는 것이라 해도 반드시 옥인(玉人)을 시켜서 조각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를 다스리는 데 이르러서는 '네가 배운 것은 놔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신다면, 옥인에게 옥 조각을 가르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맹자·양혜왕하≫ 중에서)

○ 孟子曰:「人之患在好爲人師.」(≪孟子.離婁上≫)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사람들의 근심거리는 남의 스승 되는 것을 좋아하는 데 있다."

(≪맹자·이루하≫ 중에서)

○ 孟子將朝王, 王使人來曰:「寡人如就見者也, 有寒疾, 不可以風. 朝, 將視朝, 不識可使寡人得見乎?」 對曰:「不幸而有疾, 不能造朝.」 明日, 出弔於東郭氏. 公孫丑曰:「昔者辭以病, 今日弔, 或者不可乎?」 曰:「昔者疾, 今日愈, 如之何不弔?」 王使人問疾, 醫來. 孟仲子對曰:「昔者有王命, 有采薪之憂, 不能造朝. 今病小愈, 趨造於朝, 我不識能至否乎?」 使數人要於路, 曰:「請必無歸, 而造於朝!」 不得已而之景丑氏宿焉. …… 景子曰:「否, 非此之謂也. 禮曰: □父召, 無諾, 君命召, 不俟駕.□ 固將朝也, 聞王命而遂不果, 宜與夫禮若不相似然.」 曰:「豈謂是與? 曾子曰: □晉楚之富, 不可及也, 彼以其富,

我以吾仁，彼以其爵，我以吾義，吾何慊乎哉?□ 夫豈不義而曾子言之? 是或一道也. 天下有達尊三，爵一，齒一，德一. 朝廷莫如爵，鄕黨莫如齒，輔世長民莫如德. 惡得有其一以慢其二哉? 故將大有爲之君，必有所不召之臣，欲有謀焉，則就之. 其尊德樂道，不如是，不足與有爲也.」(≪孟子.公孫丑下≫)

【해석】

맹자(孟子)가 장차 왕(王)을 알현하려고 하였는데, 왕이 사람을 보내와 말했다. "과인이 찾아가 뵈려 하였으나 감기가 걸려 바람을 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차 조회를 볼 예정이오니, 과인으로 하여금 뵐 수 있도록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맹자) 대답하였다. "불행히도 몸이 아파 조회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튿날, 동곽씨(東郭氏) 집에 조문을 가려고 나서자, 공손추(公孫丑)가 말했다. "어제는 아프다시며 사양하시고, 오늘 조문을 가시는 것은 불가한 듯합니다."

(맹자)말했다. "어제는 아팠으나 오늘은 나았으니 어찌 조문을 가지 않겠느냐?"

왕이 사람을 보내 병세를 묻고, 의원까지 왔다. 맹중자(孟仲子)가 대답했다. "어제 왕명이 있었으나 몸이 아파 조회에 나갈 수 없었는데, 오늘은 병이 조금 나아서 조정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지금쯤 도착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사람들을 시켜 맹자를 찾거든 "반드시 돌아오시지 말고 조정으로 가십시오"라고 전하도록 하였다. 부득이 맹자는 경추씨(景丑氏) 집으로 가서 묵게 되었다.

(생략)

경자(景子)가 말했다. "예(禮)에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대답만 해서는 안 되고, 임금께서 부르시면 수레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틀림없이 뵈려고 하였음에도 임금의 명을 듣고는 드디어 실행하지 않으셨다 하니, 예와 서로 같지 않은 듯합니다."

(맹자) 말했다. "어찌 그리 말씀하시오? 증자(曾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晉)나라나 초(楚)나라의 부함은 미칠 수 없지만, 저들이 자신들의 부함으로써 한다면 나는 나의 인함으로써 하고, 저들이 자신들의 벼슬로써 한다면 나는 나의 의로움으로써 하리니, 내 어찌 부족하랴?' 어찌 옳지 않은 것을 증자께서 말씀하셨겠소? 이것도 하나의 길이라오. 하늘 아래 모두에게 해당하는 존귀함[達尊]이 세 가지 있

으니, 벼슬, 나이, 덕이 그것이오. 조정에서는 벼슬만한 것이 없고, 고을에서는 나이만한 것이 없고, 세상을 돕고 백성을 기르는 데는 덕만한 것이 없지요. 어찌 이 중에 하나를 가졌다고 하여 둘을 가진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러므로 장차 크게 뭔가를 할 임금은 반드시 함부로 부르지 못할 신하가 있어서,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찾아간답니다. 덕을 존중하고 도를 즐거워함이 이 정도가 안 된다면 더불어 뭔가를 하기에 부족합니다."

(≪맹자·공손추하≫ 중에서)

○ 孟子告齊宣王曰:「君之視臣如手足, 則臣視君如腹心, 君之視臣如犬馬, 則臣視君如國人, 君之視臣如土芥, 則臣視君如寇讎.」 王曰:「禮, 爲舊君有服, 何如斯可爲服矣?」 曰:「諫行言聽, 膏澤下於民, 有故而去, 則君使人導之出疆, 又先於其所往, 去三年不反, 然後收其田里. 此之謂三有禮焉. 如此, 則爲之服矣. 今也爲臣諫則不行, 言則不聽, 膏澤不下於民, 有故而去, 則君搏執之, 又極之於其所往, 去之日, 遂收其田里. 此之謂寇讎. 寇讎, 何服之有?」(≪孟子.離婁下≫)

【해석】

맹자(孟子)가 제선왕(齊宣王)에게 말했다. "임금이 신하를 수족(手足)과 같이 여기시면 신하는 임금을 복심(腹心)과 같이 여길 것이고, 임금이 신하를 견마(犬馬)와 같이 여기시면 신하는 임금을 국인(國人)과 같이 여길 것이며, 임금이 신하를 토개(土芥)와 같이 여기시면 신하는 임금을 원수와 같이 여길 것입니다."

왕이 말했다. "예(禮)에 '옛 임금을 위해 상복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상복을 입는 것입니까?"

(맹자) 말했다. "간하면 실행하고 말하면 받아들여 기름진 혜택이 백성에게 내려가고, 어떤 이유로 떠나게 되면 임금이 사람을 보내 국경까지 안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에 먼저 추천을 해주며, 떠난 지 삼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은 다음에야 그의 토지를 거두어들입니다. 이를 일러 세 가지 예(禮)를 갖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임금을 위해 상복을 입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신하가 간해도 실행하지 않고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아 기름진 혜택이 백성에게 내려가지 못하고, 어떤 이유로

떠나게 되면 임금이 붙잡아두려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에 극언을 하며, 떠나는 날 바로 그의 토지를 거두어들입니다. 이를 일러 원수라고 하나니, 원수에게 무슨 상복이 있겠습니까?"

(≪맹자·이루하≫ 중에서)

○ 孟子曰:「古之賢王好善而忘勢, 古之賢士何獨不然? 樂其道而忘人之勢, 故王公不致敬盡禮, 則不得亟見之. 見且由不得亟, 而況得而臣之乎?」(≪孟子.盡心上≫)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옛날의 어진 왕들은 선(善)을 좋아하여 세(勢)를 잊었다. 옛날의 어진 선비들이라고 어찌 그러하지 않았겠는가? 그 도(道)를 즐거워하고 남의 세(勢)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왕(王)과 공(公)이 공경과 예의를 다하지 않으면 자주 만날 수 없었던 것이다. 자주 만날 수조차 없었는데, 하물며 신하로 삼을 수 있었겠는가?"

(≪맹자·진심상≫ 중에서)

○ 曰:「君之欲見之也, 何爲也哉?」

曰:「爲其多聞也, 爲其賢也.」

曰:「爲其多聞也, 則天子不召師, 而況諸侯乎? 爲其賢也, 則吾未聞欲見賢而召之也. 繆公亟見於子思, 曰: □古千乘之國以友士, 何如?□ 子思不悅, 曰: □古之人有言曰: 事之云乎? 豈曰友之云乎?□ 子思之不悅也, 豈不曰: □以位, 則子, 君也, 我, 臣也, 何敢與君友也? 以德, 則子事我者也, 奚可以與我友?□ 千乘之君求與之友而不可得也, 而況可召與?」(≪孟子.萬章下≫)

【해석】

(맹자) 말했다. "임금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한다면 무엇 때문이겠는가?"

(만장) 말했다. "그가 견문이 많거나 현명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맹자) 말했다. “견문이 많기 때문이라면, 천자(天子)라 해도 스승을 부르지 못하는 법이거늘 하물며 제후(諸侯)이겠느냐? 현명하기 때문이라면, 현자를 만나고 싶어서 불렀다는 말은 내 아직 들어보지 못했구나. 옛날 목공(繆公)이 자사(子思)를 자주 접견하였는데, 어느 날 목공이 말했다. ‘옛날에 천승(千乘)의 나라 임금이 선비와 벗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사가 못마땅해 하며 말했다. ‘옛 사람들이「 섬긴다」고는 했어도 어찌「 벗한다」고 했겠습니까?’ 자사께서는 ‘위(位)를 가지고 말한다면 그대는 임금이고 나는 신하이니 어찌 감히 임금과 벗할 수 있으리오? 덕(德)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대는 나를 섬겨야 할 자이니 어찌 나와 벗할 수 있으리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못마땅해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천승의 나라 임금이 더불어 벗하기를 요구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이거늘 하물며 부를 수 있겠느냐?”

(≪맹자·만장하≫ 중에서)

○ 「尊德樂義, 則可以囂囂矣. 故士窮不失義, 達不離道. 窮不失義, 故士得己焉, 達不離道, 故民不失望焉. 古之人, 得志, 澤加於民, 不得志, 修身見於世.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孟子.盡心上≫)

【해석】

“덕(德)을 존중하고, 의(義)를 즐거워하면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비는 곤궁하여도 의(義)를 잃지 않고, 영달하여도 도(道)를 떠나지 않습니다. 곤궁하여도 의(義)를 잃지 않기 때문에 선비는 자신을 잃지 않게 되고, 영달하여도 도(道)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은 희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옛 사람은 뜻을 펼칠 수 있게 되면 은택이 백성에게 더해지고, 뜻을 펼칠 수 없게 되면 자신을 닦는 것으로 세상에 드러납니다. 곤궁하면 홀로 그 몸을 좋게 하고, 영달하면 아울러 천하를 좋게 합니다.”

(≪맹자·진심상≫ 중에서)

○ 孟子曰:「人不足與適也, 政不足閒也, 唯大人爲能格君心之非. 君仁, 莫不仁, 君義,

莫不義, 君正, 莫不正. 一正君而國正矣.」(≪孟子.離婁上≫)

【해석】

맹자(孟子)가 말했다. "잘못 등용한 인재를 하나하나 꾸짖을 수 없으며, 잘못 시행된 정책 하나하나를 비난할 수도 없다. 오직 대인(大人)만이 능히 임금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다. 임금이 인(仁)하면 인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임금이 의(義)로우면 의롭지 않을 사람이 없으며, 임금이 반듯하면 반듯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임금 하나를 바르게 하면 나라가 바르게 된다."

(≪맹자·이루상≫ 중에서)

○ 陳代曰:「不見諸侯, 宜若小然, 今一見之, 大則以王, 小則以霸. 且志曰: □枉尺而直尋.□ 宜若可爲也.」

孟子曰: 「昔齊景公田, 招虞人以旌, 不至, 將殺之. □志士不忘在溝壑, 勇士不忘喪其元.□ 孔子奚取焉? 取非其招不往也. 如不待其招而往, 何哉? 且夫枉尺而直尋者, 以利言也. 如以利, 則枉尋直尺而利, 亦可爲與?

昔者趙簡子使王良與嬖奚乘, 終日而不獲一禽. 嬖奚反命曰: □天下之賤工也.□ 或以告王良. 良曰: □請復之.□ 强而後可, 一朝而獲十禽. 嬖奚反命曰: □天下之良工也.□ 簡子曰: □我使掌與女乘.□ 謂王良. 良不可, 曰: □吾爲之範我馳驅, 終日不獲一, 爲之詭遇, 一朝而獲十. 詩云, 「不失其馳, 舍矢如破. 」我不貫與小人乘, 請辭□

御者且羞與射者比, 比而得禽獸, 雖若丘陵, 弗爲也. 如枉道而從彼, 何也? 且子過矣, 枉己者, 未有能直人者也.」(≪孟子.滕文公下≫)

【해석】

진대(陳代)가 말했다. "제후를 만나시지 않는 것은 작은 문제인 듯합니다. 이제 한 번 만나시기만 하면, 크게는 왕(王)이 되게 하실 것이고, 작게는 패(霸)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옛말에 '한 자를 굽혀 한

길을 곧게 한다'는 말이 있으니, 해볼 만한 듯합니다."

맹자(孟子)가 말했다. "옛날 제경공(齊景公)이 사냥을 할 때, 정(旌)을 보내 산지기를 불렀으나 오지 않자 죽이려 하였다. '지사(志士)는 산구렁텅이에 있는 것을 잊지 않고, 용사(勇士)는 그 머리를 잃을 것을 잊지 않는다'고 하셨다. 공자(孔子)께서는 여기에서 무엇을 취하신 것인가? 자신에게 맞는 부름이 아니라서 가지 않은 점을 취하신 것이다. 만일 부름을 기다리지 않고 제 발로 간다면 어찌되겠는가? 더구나 '한 자를 굽혀 한 길을 곧게 한다'는 말은 이로움[利]에 기준을 두고 한 말이다. 만일 이로움에 기준을 둔다면 한 길을 굽혀 한 자를 곧게

옛날에 조간자(趙簡子)가 왕량(王良)으로 하여금 총애하는 해(奚)를 위해 수레를 몰게 하였으나 종일토록 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해가 돌아와 말하기를 '천하에 형편없는 마부였습니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왕량에게 고하자, 왕량이 다시 한 번 사냥에 나가기를 간청한 끝에 허락을 받았다. 이번에는 한 나절 만에 새 열 마리를 잡았다. 해가 돌아와 말하기를 '천하에 훌륭한 마부였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간자는 '내 그로 하여금 너의 전담 마부를 삼아주마'라고 하고 왕량에게 그말하니, 왕량이 불가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법도에 맞게 수레를 몰았을 땐 종일토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더니, 사냥감과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만나게 해주었더니 한 나절 만에 열 마리를 잡았습니다. 『시경』에 "법도를 잃지 않고 말을 달렸거늘 화살을 쏘아 맞히기를 부숴버리 듯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소인과 함께 수레를 타는 것이 익숙지 않으니 사양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해도 이롭다면 해야 하는 것인가?

수레를 모는 사람도 활 쏘는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아부해서 사냥감을 산더미처럼 많이 잡는다 해도 하지 않는다. 만일 도를 굽혀 상대방을 따른다며 어찌되겠느냐. 더구나 그대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 자신을 굽히고서 남을 곧게 하는 경우는 없다."

(≪맹자·등문공하≫ 중에서)

○ 吾未聞枉己而正人者也, 況辱己以正天下者乎? 聖人之行不同也. 或遠, 或近, 或去, 或不去, 歸潔其身而已矣. (≪孟子.萬章上≫)

【해석】

자신을 굽히고서 남을 바르게 한다는 이야기를 나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는데, 하물며 자신을 욕되게 하여 천하를 바르게 하는 것이겠느냐? 성인(聖人)들이 가시는 길은 같지 않아서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며, 떠나기도 하고 떠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그 자신을 깨끗이 하는 데로 귀결될 따름이다.

(≪맹자·만장상≫ 중에서)